

호남권 최대 산업전 ‘광주미래산업엑스포’ 개막

호남권 최대 산업전시회인 ‘2025 광주 미래산업엑스포’가 25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식을 갖고 나흘간 여정에 들어갔다.

이번 엑스포는 국내외 270여개 기업이 참여해 총 570개 부스를 운영하며 미래 산업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엑스포는 광주가 공들여 육성해온 미래모빌리티, 가전·로봇, 드론·뿌리산업 등 최첨단 미래산업의 성과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전시회”라며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AI융합 미래모빌리티 혁명시대 흐름에 맞춰 광주를 대한민국 대표 미래모빌리티 도시로 육성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올해 엑스포는 ‘AI융합 모빌리티 기술테크(Tech) 전시회’로 구성돼 혁신기업들의 신제품과 기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기업 유치와 지역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개막행사에 이어 참석자들은 전시장에 마련된 주요 기업의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첨단기술을 체험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가 참여한 기술테크관에서는 차세대 소프트웨어 중심공장(SDF) 구축의 핵심 요소인 AMR·MPR(물류 모빌리티 로봇) 기술과 수요자 맞춤형 차량(PV5) 및 수직 이착륙 UAM(미래항공모빌리티) 모형기 등이 전시돼 큰 관심을 끌었다.

전시 기간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

AI융합 모빌리티 등 신기술 전시...270개사 참여 570개 부스 운영
수출상담회서 참가기업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일자리박람회 연계도
과학 인플루언서 허성범 특강... 자율주행차 시승 등 체험행사 풍성



지역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수출상담회가 함께 열려 지역 우수 참가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시민들을 위한 체험 콘텐츠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자율주행차 시승 ▲드론축구 ▲3D프린팅 체험 ▲로봇 요리 시연 ▲EV 차량 전시 등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운영된다.

이밖에 ‘광주방문의 해’ 홍보부스 운영, 기업 부스 경품 이벤트, 굿즈 할인행사 등 일반 시민도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부대행사로 26일에는 청년·중장년·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박람회인 ‘2025 광주 함께 JOB 페스타’가 열리며, 28일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로봇경진대회와 과학 인

플루언서 허성범 씨의 AI 특별강연이 예정돼 있다.

‘2025 광주미래산업엑스포’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일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개막일인 25일에는 야간 운영으로 밤 8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신영길 기자



광양경제자청, 전남동부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제자청)은 6월 25일 청사에서 전남동부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조원일, 이하 지원센터)와 광양만권 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구충곤 광양경제자청장, 김용민 전남대 여수캠퍼스 부총장, 김상훈 전남대 산학협력본부장, 조원일 지원센터장, 김정완 광양경제자청 투자유치본부장, 오수미 광양경제자청 행정기획부장 등 양 기관 임직원과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식은 광양만권 내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근로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인권 보호, 생활안정 지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법적 권리 보호 및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 ▲건강 보호 및 의료서비스, ▲일자리 알선 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구충곤 광양경제자청장은 “최근 광양만권에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는 만큼 이분들이 우리 지역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오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에 기후변화 시대 유망작물로 주목받는 ‘아열대채소 전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의 신소득 작목 발굴과 기능성 채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장은 박람회장 내 전남도 전시관

10월 국제농업박람회서 아열대채소 선보인다

기후변화 대응·신소득 작목 발굴 위해 미래농업 전시 주목

일원에 조성되며, 관람객과 농업인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주요 전시 작물은 뽕이, 여주, 땅콩호박, 공심채, 차요배 등 건강 가능성이 뛰어난 아열대채소다. 이들 작물은 항산화 성분과 혈당 조절 등 건강에 유익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최근 건

식식품 원료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선 바닐라, 올리브 등 이색 열대식물도 함께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민영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연구사는 “기후변화로 국내에서도 아열대

작물의 재배 가능 지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아열대채소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서의 가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형 작목 개발과 보급 확대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채일 기자

전남도농업박물관, 27일 ‘동아시아 쌀 문화 페스타’ 개막

12월까지 문화연대·농업가치 조명할 전시·체험·공연·강연 다채

전라남도농업박물관이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쌀 문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적 연대와 농업의 가치를 조명하는 ‘동아시아 쌀 문화 페스타’를 개최한다.

27일 개막식에는 페스타의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와 함께 ‘남도천지밥’ 공연 등이 펼쳐진다. 남도천지밥 공연은 남도의 풍요로움과 정서를 밥상 위에 재현한 상징적 공연으로 관람객의 호응이 기대된다.

‘동아시아의 미(米), 쌀 문화’ 주제 특별 전시도 준비됐다. 전시에서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ACC)이 소장한 일본, 미얀마, 인도네시아 국가 농경 유물 30여 점이 함께 전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대표 미디어아티스트인 박상화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도 선보인다. 박 작가는 일제강점기 시대 전통 모내기 등이 담긴 옛 엽서 이미지를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해 미디어아트 영상과 빛, 사운드 등을 활용해 현대적으로 풀어낼 계획이다.

동아시아 지역 다양한 민족의 문화가 융합된 쌀 중심의 생활양식을 함께 체험하고 감상할 ‘다문화 꾸러미’도 상설 전시한다.

쌀 주제 관련 전문 강좌도 열린다. 7월 30일부터 매달 한차례 ‘문화가 있는 날’인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진행된다.

강연 주제는 ▲쌀 문화 ▲청년 농부의 도전 ▲농업 6차 산업 ▲선진 농가 사례 ▲농업기술 등 총 5개 분야로, 다양한 전문가가 순차적으로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전문 강연자는 박종오 남도민속학 회장, 차정환 청년 농부, 이동현 농업회사법인 (주)미실란 대표, 강수성 농부, 신서호 전남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등이다. /우인 기자

전남도, 화학·물류 기업 대상 투자유치 온힘

25일 서울서 설명회... 신규 부지·인센티브 소개 큰 호응

관심을 받았다.

신규 산업용지는 울촌 융복합물류단지, 묘도 항만재개발지구, 여수국가산단 확장단지, 3개소다.

울촌 융복합물류단지는 약 100만 평 면적에 석유화학 등 부두를 설치할 예정으로 수출입에 강점이 있다. 입주 대상은 석

유화학 업종과 물류 관련 업종이다.

묘도 항만재개발지구는 약 94만 평 중 20만여 평에 LNG탱크와 부두 등 관련 시설이 건축 중으로, 연관 산업 입주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여수국가산단 확장단지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 확장단지다. 이미 구축된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고 기존 공장으로부터의 거리가 짧아 연계가 가능한 점 등 단점으로 특색이 있어 참가 기업으로부터 관심을 모았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전남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위기상황에서도 기업이 신산업 진출 등 활로를 모색하도록 선제적 산업유치 공급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종팔 기자



자연속의 가족매를 곡성